

서평

붓다, 불교미술의 의미, 불교미술의 위상

-배재호, 『나의 불교미술 이야기』(종이와 나무, 2019)-

신 은 영*

I. 이 책을 읽는 맥락

우리가 사는 일상을 둘러보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곳에 ‘불교미술’이 산재해 있음을 알게 된다. 산과 들에는 석탑이, 논밭 한가운데는 석불들이 있으며, 수많은 사찰에는 불상과 불화들이 모셔져 있고, 동중은 때를 맞추어 울린다.

이 모든 ‘불교미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언제부터 이런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일까? 시간의 때가 묻어 있고, 현재 세속에 살고있는 우리로서는 먼 옛날 불교미술이 살아 숨쉬던 때의 의미를 알기 어렵다. 그것은 이미 문화재 혹은 불교미술사의 대상으로 배워야 하는 ‘지식’이 되었다.

이 책, 『나의 불교미술 이야기』는 이러한 ‘불교미술의 의미 =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나 『사찰의 비밀』과 같은 대중 교양서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 책의 포부는 이들보다 더 크다. 저자는 붓다의 일생 · 붓다의 말씀 · 붓다의 또다른 모습이라는 틀,

* 申恩英,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shiney@korea.kr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9..239>

즉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열반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불교미술을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불교와 불교미술을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위치시킨다. “불교는 천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삶을 채색하여” 왔기 때문에 “불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이 책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불교미술, 특히 한국의 불교미술이 붓다의 일생과 말씀을 기준으로 체계화가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접점은 무엇이고, 접점이 밝혀줄 수 있는 지식이란 어떤 것이며, 이러한 접점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는 저자가 이 책을 구성한 원리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저자는 누차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와 그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저자는 불교미술과 한국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저자는 불교를 인도에서 출발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화된, 한국 문화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던 영역으로 설정하는가?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이 살고 죽는 과정에서 신념하고 의지한 특수한 문화의 하나로 보는가? 이는 이 책이 붓다와 불교미술을 통해 보고자 하는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Ⅱ. 붓다와 불교미술

이 책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부, 1)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 2) 석가모니 붓다의 말씀, 3) 석가모니 붓다의 또다른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여기에서는 본문의 구성 방식과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구성이 갖는 특성과 아울러 그것이 간과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1부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에서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탄생, 출가, 성도, 열반이라는 네 가지 계기로 나눈 후 각각의 계기들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의미 혹은 그 의미의 장면을 다룬 불교미술들을 배치하여 설명하였다. 1부가 붓다의 '일생'과 관련된 것인 만큼 그와 관련된 미술, 즉 불전도 내지 팔상도, 탄생불과 불탑 등이 기본 의미를 드러내는 미술품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2부 「석가모니 붓다의 말씀」에서는 광배 및 범종과 같은 유물에서부터 가람 배치나 불화에서 드러나는 불교적 세계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영산회상도 및 경전을 베껴쓰는 행위와 그 결과물로서의 사경을 '말씀'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종은 그 형태와 표면에 선각된 도상이 미술사적 연구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소리를 기준으로 하여 말씀 항목에 위치시켰다. 저자의 분류 기준과 의도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3부 「석가모니 붓다의 또다른 모습」에서는 아미타불·미륵불·약사불·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그러한 '또다른 붓다'를 형상화한 불상과 불화, 이를 안치한 전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책에서 불교미술 의미의 근원을 붓다로 삼되 이를 여러 계기 혹은 측면으로 나누고, 이러한 계기와 측면이 반영된 미술품을 연결하여 내용을 구성한 것은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석가모니 붓다의 모습은 상(相)으로 표현된다. 상은 회화와 조각을 망라한다. 상은 체(體)에서 비롯되는데, 체란 곧 석가모니 붓다의 전생과 일생,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뜻한다. 이런 것들을 조형화할 때 비로소 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체와 상의 역할, 즉 쓰임새가 용(用)이다.”¹⁾

1) 배재호, 『나의 불교미술 이야기』, 종이와 나무, 2019, 249쪽.

즉, 우리 주위의 모든 불교미술을 體-相-用이라는 틀로 체계화할 때 비로소 개별 미술이 가지고 있는 체, 즉 의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대담한 시도로서, 저자가 이 책의 전신이 되는 책 제목을 『세상은 연꽃 속에』로 명명한 것 역시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²⁾ 이러한 체계화와 위상 설정을 통해 우리는 불교미술이 가진 의미를 집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범종-경전, 불상-불화 등 유물 형태의 경계를 넘어 그 속에 존재하는 의미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불교미술을 체계화-연계화하여 집합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눈이 큰 그물을 쓰면 작은 물고기가 빠져나가듯, 이러한 구성은 불가피하게 포착되지 않는 부분을 만든다.

앞서 이 책에서 불교미술은 각각의 형태를 넘어 내적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는 用의 차이를 넘어 體와 相의 차원에서는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불화와 불상과 불탑이, 범종과 사경과 불화가, 그리고 아미타와 미륵, 관음과 지장이 같이 묶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화는 어떻게 가능하고 그 부작용은 무엇일까? 불화와 불상과 불탑이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붓다의 일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가능한 것이다. ‘붓다의 말씀’과 ‘또다른 붓다’라는 범주화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인식하는 불탑이란 무엇일 수 있는가? 사리를 장엄·봉안하는 곳이란 의미에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주지하듯이 불교미술사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의미보다 낮은 차원’ 즉, 탑 표면의 부조나 탑들의 변화 과정 등이다. 만약 불탑을 體라는 의미에서 인식한다면, 미술사가 보려는 부분은 가려지게 된다. 즉, 이 책의 구도를 따른다면 불교미술은 불교미술 자체의 독립성을 잃고 붓다를 보여주는 하나

2) 배진달, 『세상은 연꽃 속에 - 우리 문화재 속에 숨쉬는 석가모니 붓다』, 프로네시스, 2006.

의 수단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Ⅲ. 불교미술과 한국 문화

왜 저자는 불교미술에서 ‘붓다’를 찾으려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저자 스스로 말했듯이, 불교미술을 통해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저자가 ‘불교미술’과 ‘한국 문화’를 어떻게 연계 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연계 방식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없는지를 찾아 이후 연구의 참고점으로 삼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표현하였다. 때문에 프롤로그는 「붓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 하였고, 에필로그에는 「여행을 마치며」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여행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여행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십여년 전 『세상은 연꽃 속에』에서 저자가 말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우리나라 문화와 그 혼적인 문화재를 이해하는 방법은 여럿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석가모니 붓다가, 또 그의 일생이 우리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는지를 통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시간을 가로지르고, 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여행의 이면에서 우리 문화의 한 뿌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³⁾

시간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오해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표현을 『나의 불교미술 이야기』의 「여행을

3) 배진달, 앞의 책, 2006, 13쪽.

마치며」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석가모니 붓다의 탄생부터 열반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이 우리의 문화적 숨결 속에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또 우리 선조들의 구도적 열망과 세속적 소망들이 불교미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 속에서 숨쉬고 있는 석가모니 붓다의 참된 가르침을 확인하고 싶었다.”⁴⁾

저자는 ‘석가모니의 일생이 한국 문화 속에 어떻게 되살아나는지, 선조들의 구도적 열망과 세속적 소망들이 어떻게 불교미술에 반영되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이 곧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만든 원인을 추적하는 방편도 된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숨쉬고 있는 석가모니 붓다의 참된 가르침은 곧 우리 문화의 특수성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자의 여행 목적은 불교라는 보편성이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어떻게 특수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표현되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보편성의 한국적 특수성, 혹은 한국적 변형을 찾으려는 열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간적 이동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저자가 『중국불상의 세계』(2018), 『세계의 석굴』(2015), 『당대 불교조각』(2003) 등을 저술한 중국 불교미술 전문가라는 점이다. 저자가 한국 불교미술을 보는 것은 중국과는 다른 풍경으로의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불교라는 보편성의 시좌에서 붓다가 각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게 변형되는지를 볼 수도 있다. 저자가 말한 “우리 문화 속에서 숨쉬고 있는 석가모니 붓다의 참된 가르침”이란 이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기 때문에”, “불교

4) 배재호, 앞의 책, 2019, 249쪽.

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과거나 현재 불교가 한국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았을 때, 불교를 이해하지 않고 우리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전적으로 맞다. 그렇다면 이 경우 불교미술은 다른 나라와 다른 한국 불교 문화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미술사적으로, 과거의 불교미술은 한국이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표출하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을 의탁했던 ‘특수한’ 문화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유교 혹은 기독교와 똑같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틀 지어주던 특수한 문화 자본의 하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라면 불교미술의 한국적 특수성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 차지하는 불교적 특수성도 한국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인식의 초점이 모일 것이다.

불교미술은 도처에 있다. 그런데 불교미술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의미를 찾아 나서면 하나에서 전체로 가는 길은 아주 좁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끊어진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한 불교미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배재호 교수의 『나의 불교미술 이야기』는 불교미술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